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 청소년 철학교실의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생들은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을 통해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청소년철학교실 운영

청소년 철학교실은 현재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열리는 철학교실은 1년에 4학기제(봄·여름·가을·겨울학기)로 진행되며, 광주 시내 혹은 전남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전남대학교로 직접 찾아와 수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당 중등부·고등부로 나뉘어 평균 2~4쪽지가 개설되어 일주일에 1회(2시간), 총 8주 동안 강의가 진행됩니다. 8회 강의 중 5회 이상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철학교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철학교실 다음카페 <http://cafe.daum.net/youthphil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외부강의는 현재 2014년 7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10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철학교실 운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꼭지 당 8회 기준(1회당 2시간, 1주 1회 수업, 총 16시간) 최소 14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이 운영비에는 강사료와 원고료, 철학교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횟수 및 일정은 학교 일정과 강사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 반당 적절한 인원수는 보통 10-15명입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강의 특성상 인원을 부득이한 경우 최대 2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대인원을 인원 초과하는 시에는 2개의 반으로 분반할 것을 권유합니다.
- 강좌의 75%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는 철학연구교육센터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전남지역의 학교인 경우 교통비가 추가로 산정됩니다.

□ 철학교실 강의안 예시

- 강의는 각 선생님들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그리스 신화, 문학, 고전읽기, 시사/사회문제, 글쓰기, 예술체험, 영화 등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학적 개념과 사유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강의안 예시 첨부

고대 그리스와 자유의 탄생

자유! 흔히들 쓰는 말이고 잘 알고 있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찬란하지만 얻기 힘들고, 누리고 있는가 하면 어스레 사라져 있는 이 제멋대로의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혹시 인류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던 것일까요? 아니면 본디 없던 것인데 누군가 애써 탄생시켜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것일까요? 만일 낳은 것이라면, 낳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낳고 키우고 가꾸면서 성장시켜 왔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번 학기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던 자유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한번 추적해볼까 합니다. 서양 문명에서 최초의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로부터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기원전5세기 아테네까지!

-진행방식: 읽기(미디어)-강의-토론

	날 짜	주 제	세부내용
1		OT: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를 위한 자유연상
2		고대 그리스의 이해	키토 『그리스, 그리스인들』
3		영웅의 탄생	호메로스, 『일리아스』
4		그리스 신들은 다 어디로?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5		자유와 자만 사이에서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6		자유와 자만 사이에서	페리클레스, 「진몰자 추도 연설」
7		시민의 탄생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8		헬레니즘 시대의 풍경	영화 『아고라』 감상 및 토론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등학생_ 읽기+쓰기+토론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며,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만약 행복이라는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향해 용기와 의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너도 나도 행복을 말하고 꿈꾸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행복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관적 마음 상태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객관적 지표일까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오늘의 나는 왜 불행할까요?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그때는 정말 행복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직업이 있고 결혼한 어른들이 행복해보이지 않는 건 왜일까요?

이 강의는 2500년동안 철학자들이 성찰해온 행복의 의미와 가능조건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의문들을 철학적으로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2강부터 4강까지는 행복의 본래적 의미에 대해서, 5강부터 7강까지는 행복이 기만적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마지막 8강에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강의는 강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스스로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텍스트를 읽고 생각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수요일’ 강의 전에, 철학 텍스트의 일부분을 직접 읽고, ‘일요일’까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를 청소년철학교실 Daum 카페 수업게시판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강의자가 그 에세이를 피드백해드리고, 강의 시간에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리된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날짜	내용 / 텍스트
1월 8일	1강_ 오리엔테이션 :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1월 15일	2강_ 나는 언제 쾌락을 느끼는가?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
1월 22일	3강_ 나는 나 자신과 더불어 행복한가?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월 29일	4강_ 국민행복 시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밀, 『공리주의』
2월 5일	5강_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 마르크스, 『경제학·철학초고』
2월 12일	6강_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할까?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
2월 19일	7강_ 내가 꿈꾸는 행복은 진짜 나의 것일까? 아도르노 / 호르크하이머, 『계몽의 변증법』
2월 26일	8강_ 너의 행복 없이는 나의 행복도 없다. 호네프트, 『인정투쟁』

프로그램 :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다

- 사라진 목소리, '나' : 자본주의적 일상 반성하기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이란 철학자는 현대인을 향해 세계 없는(worldless)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없다는 말은 곧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삶에 대해 별다른 고민이나 이해가 없다는 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세계 없는”이란 표현으로 별 생각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꼬집은 것이죠. 특히 그는 국내에서 진행된 한 강연에서 세계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로 바로 우리 한국인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별 생각 없는 그저 ‘열심히’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나름의 자기 생각과 고민 없이는 열심히 뭔가를 하기 어려울 텐데 말이죠.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 심한 사람들 중 하나인 한국인을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다니요?

분명히 우리는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어릴 적부터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또한 그 이유도 ‘그냥’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저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매우 어릴 적부터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젝의 지적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이론만 아는 철학자의 단순한 오해일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물음을 이렇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며 열심히 공부해온 것일까? 아니면 단지 그렇게 믿어 온 것일까?

이번 철학교실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의 문제를 일상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다루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를 “세계 없는” 사람들로 만든 중요한 원인으로 지젝이 지적한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적 믿음의 문제를 살펴 볼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우리와 지극히 밀접한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교재: 매 수업 시간에 배부
- 대상: 주제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이상의 수강생(14명 이내)
- 프로그램 세부 내용

회차(일시)	세부 주제	진행 방식
1(월 일)	자본주의적 일상의 문제	오리엔테이션
2(월 일)	『형거』	영화 감상
3(월 일)	꿈을 향한 태도	강의/토론
4(월 일)	그릇된 토대	강의/토론
5(월 일)	사라진 이름, '나'	강의/토론
6(월 일)	여전히 빛나간 물음들	강의/토론
7(월 일)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강의/토론
8(월 일)	내 목소리 되찾기	자기 일상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시간 갖기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인을 위한 도덕

그리스-로마 윤리학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것이 ‘도덕/윤리’의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도덕적인 사람’은 자유로울까요? 도덕은 오히려 싫은 일을 강요하면서 우리를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삶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궁리해야 할 물음입니다. 물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윤리학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유를 삶의 이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재 : 복사물로 배부

날 짜	세 부 과 정
1(4월 30일) 수요일	아킬레우스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었나? - 호메로스
2(5월 7일) 수요일	아버지를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 소피스트
3(5월 14일) 수요일	네 영혼을 돌보라 - 소크라테스
4(5월 21일) 수요일	내 존재는 언제 완성되는가? - 플라톤
5(5월 28일) 수요일	행복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 아리스토텔레스
6(6월 4일) 수요일	두려움을 넘어선 곳에 자유가 있다 - 스토아 학파
7(6월 11일) 수요일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겁다.” - 에피쿠로스 학파
8(6월 18일) 수요일	내 영혼이 쉬 곳은 어디인가? - 아우구스티누스

여덟 개의 물음

문학을 통해 만나는 사춘기

입시경쟁에 혈안이 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춘기를 공부에 방해가 되는 질병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의 갈등과 혼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는다고 모두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막연하고 의문투성이인 삶에 대해 스스로 사유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강의는 절박하면서도, 엉뚱하고, 우스우면서도 가슴 짠한 십대들의 사춘기를 담은 3권의 문학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왜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 방황을 극복해 가는지 여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규범과 저항, 꿈과 행복, 자기실현, 성과 사랑 등 청소년기에 고민해봐야 할 철학적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 재 : 각자 책을 구해 읽어 와야 함. 진행 자료는 복사물로 배부

날 짜	세 부 과 정	교 재
1(4월 30일) 수요일	어른들과는 왜 말이 통하지 않을까?	J. D. 샬린저 『호밀밭의 파수꾼』
2(5월 7일) 수요일	좋은 친구란 무엇일까?	
3(5월 14일) 수요일	성(性)은 19금인가?	
4(5월 21일) 수요일	공부는 왜 하는걸까?	
5(5월 28일) 수요일	착하다는 건 뭘까?	헤르만 헤세 『데미안』
6(6월 4일) 수요일	부모님의 보호는 어디까지 필요할까?	
7(6월 11일) 수요일	자아실현이란 무엇일까?	A. D. 생텍쥐베리 『어린왕자』
8(6월 18일) 수요일	사랑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다듬는 책임기, 삶을 가꾸는 글쓰기

이 강좌는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특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단단하게 쌓아올리는 연습을 하는 수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주 정해진 글을 읽고 난 뒤, 그것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은 글을 서로에게 제출하여,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며 다듬어 나가는 활동(토론)을 할 것입니다. 이 강좌에 참여할 학생들은 매주 주어진 글을 미리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A4용지 1장 분량의 글로 옮기는 ‘노력’을 감당해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 강좌에서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깊이에의 강요』들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몇 편의 단편 소설들을 꼼꼼히 읽은 뒤, 각자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입시를 위한 논술 수업이 아니며, 또한 소설, 수필, 시 등을 쓰는 문예창작 강좌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에세이로 나타내고 함께 토론하는 수업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 생각이 더욱 명료하고 단단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재: 파트리크 쥐스킨트, 『깊이에의 강요』
 자체 제작 교재, 『인문학 책, 이렇게 읽어보자』
- 대상: 고등학교 1 - 3학년 학생
- 프로그램 세부 내용

회차(일시)	세 부 과 정	진행 방식
1(월 일)	토론, 글쓰기란 무엇인가요?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수업 알림
2(월 일)	『깊이에의 강요』	읽기+토론
3(월 일)		글쓰기+첨삭
4(월 일)	『승부』	읽기+토론
5(월 일)		글쓰기+첨삭
6(월 일)	영화 <크로니클>	영화 감상
7(월 일)		글쓰기 + 첨삭
8(월 일)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은 것들 확인하기	토론+글쓰기 /수업 마무리

예술이라는 거울 앞에서

- 고통과 고향 그리고 지향 -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처한 상황에 따라 진실은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여러분에게 가볍지 않은 단어들일 것입니다. 시험, 공부, 경쟁, 성적표, 뭘 해야 할지, 뭘 잘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는 막막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뭘 하려고 하든지 발목을 잡는 공부, 쉽지 않은 친구들과의 관계, 오해들, 부모님의 기대, 지시, 명령,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진심... 예술은 '고통'받는 우리 마음의 진실을 표현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은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경쟁이 있기 전, 뭘 하든지 그 자체로 인정받던 아이시절, 아주 작은 일로 칭찬 받고 대견해 하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욕구가 채워지고 심지어 나와 남의 구분이 없었던 따스한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장한 우리들은 고향을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박한 현실을 내가 원하는 현실로 바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의 성공이 너의 실패가 되는, 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을 최대한 실현하고 완전해지는 꿈을 '지향' 합니다.

이렇게 예술은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의 고통과 고향 그리고 지향이라는 진실을 표현합니다. 예술과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술작품 앞에서 참을만하다고 생각했던 고통은 눈물이 되고, 잊어버렸던 고향은 그리워지며, 포기했던 지향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삶이 쉽지 않다고 느낀다면, 행복했던 시절이 그리우다면, 미래가 막막하다면 예술작품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교 재 : 매주 자료 배부

참고교재 : 철학아카데미 지음, 『철학, 예술을 읽다』, 동녘출판사.

참여주체 : 삶이 쉽지 않은 청소년

날 짜	세 부 과 정	비 고
1(4월 일)	진실을 표현하는 예술 학문(진리), 법(윤리) 그리고 예술(진실)	강의 토론
2(4월 일)	나를 닮은 것 내 마음의 진실 표현하기	예술체험
3(4월 일)	고통과 고향 그리고 지향 예술이 표현하는 진실 세 가지	강의, 감상, 토론
4(4월 일)	고향에 대한 향수와 퇴행 미가 끌리는 이유는?	강의, 감상, 토론
5(4월 일)	고통과 진실 꺼려지는 추가 표현하는 진실	강의, 감상, 토론
6(4월 일)	지향 - 유토피아 & 디스토피아 문화산업 비판	강의, 감상, 토론
7(4월 일)	지향 - 새 판짜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할 희망	강의, 감상, 토론
8(4월 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강의, 감상, 토론